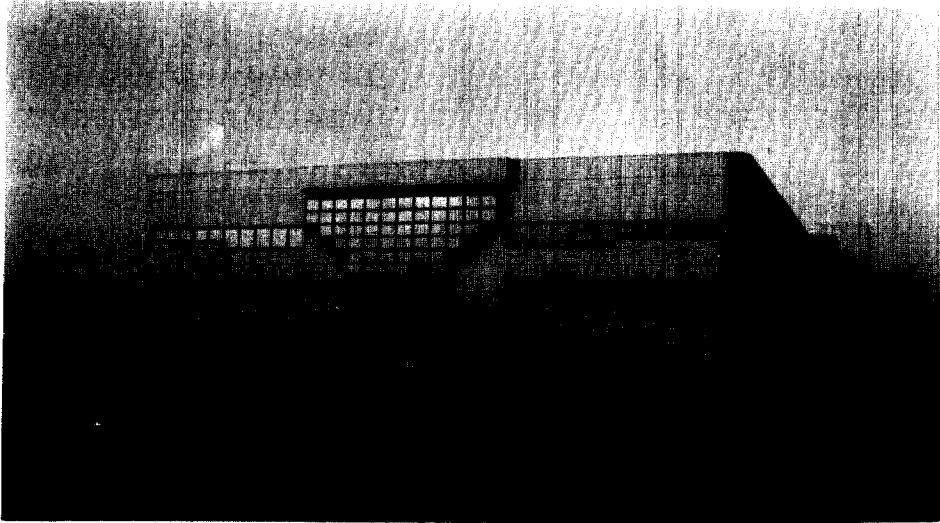


## 일동제약(주) 중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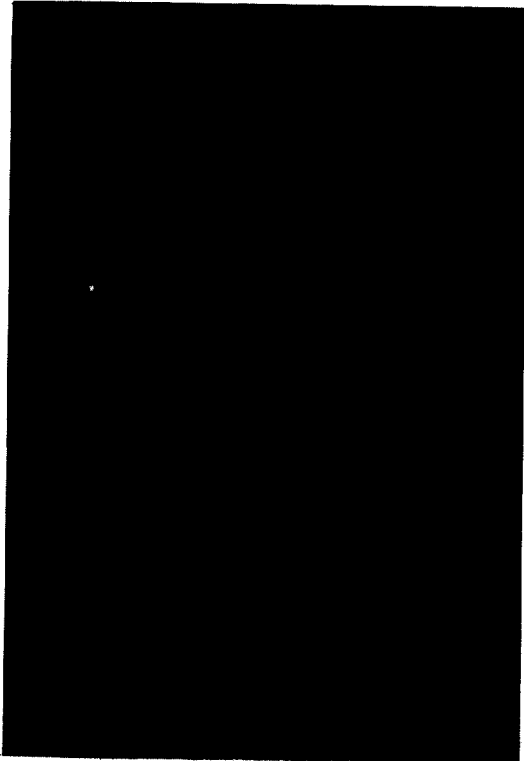
일동제약(주) 안성공장 전경

일동제약(주) 중앙연구소는 1982년 5월에 기존의 연구부를 근간으로 하여 사내의 모든 연구기능을 통합, 보완하여 독립연구소 조직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같은 해 8월 과학기술처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정식 인정받았으며 동시에 수입특례대상 연구소로 선정되었다. 1987년 10월에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아 한층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연구소는 이금기 대표이사가 소장으로, 정필근 전무가 부소장으로 되어 있어 최고경영자가 직접 참여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강한 집념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선적인 지원 체제를 설립하여 연구 업무의 뒷받침을 하고 있다. 현재 연구소 조직은 유기합성 및 공업화 연구를 담당하는 제1연구실, 제제, 분석, 약리 및 독성연구를

담당하는 제2연구실, 미생물 및 유전공학 연구와 공업화 연구를 맡고 있는 제3연구실, 정보자료와 특허관계를 취급하는 기술정보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인력으로는 박사 6명을 비롯하여 석사 13명, 학사 10여명 등 30여명의 정예연구요원이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년초 경기도 안성 공업단지에 대지 15,000여평, 건평 5,000여평의 GMP 공장을 준공하여 각 연구실은 신축 GMP 공장내로 이전하여 매우 깨끗한 환경과 최신의 시설이 특히 인상적이다. 실험기자재로는 최신 모델의 Nuclear Magnetic Resonance(Brooker)를 비롯하여 3대의 HPLC(Waters), Gas Chromatography(Varian), TLC Scanner(Camag),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Shimadzu), Infrared Spectro-



Jar Fermentor를 이용한 유산균 배양실험

photometer(Hitachi), Histamine Tester (Vso-Basile), 30/ Jar Fermentor(Marubishi), Polarizing Microscope(Olympus), Inverted Microscope(Prior), ELISA Reader(Low Laboratories) 등 각 분야의 필수 실험기기들을 고루 갖추고 있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별도의 실험동물 사육실에는 많은 종류의 실험동물을 사육하고 있으며 동물실험에 필요한 실험실을 갖추고 있고 Clean Bench를 갖춘 무균실험실과 많은 과학도서 및 전문학술잡지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실 및 회의실 등이 있어 모든 연구업무에 적절히 이용되고 있다.

그동안 동 연구소에서는 소화성 궤양치료제인 라니티딘의 원료 합성에 성공하여 “큐란”으로 제품화하여 국내시장에서 각광을 받아 이미 거대품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외에도

제1연구실 팀은 앰피실린, 아목시실린, 세파렉신 등의 항생물질 합성 기술을 개발하였다. 제2연구실은 항암성물질의 항종양성 연구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경피 흡수제제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제3연구실은 유전공학기법에 의한 유산균의 균주개발, 무공해 살충제의 개발, 유산균의 항콜레스테롤 효과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여 산업화를 꾀하고 있으며, 농약, 식품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경영 다각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대처하고자 한 기술정보실은 시장정보, 제품정보, 마케팅정보, 신약개발정보, 특허정보 등 최신의 정보를 국내외에서 신속히 입수, 분석하여 각 분야의 연구, 개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놓고 있다.

동 연구소는 1986년에 한국 신약개발연구조합, 1987년에는 한국 유전공학연구조합에 각각 가입하여 과기처 특정연구개발과제를 동 업계 및 학계와 공동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어 신물질 창출에 의한 신약개발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동 사는 금년에 매출액 대비 2%인 약 8억원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투자를 꾸준히 증가시켜 5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주요 경영방침의 하나인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연구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각별하다. 매달 한번씩 최고경영자와 기술고문이 참여하여 연구소 합동세미나를 갖고 있으며 각 연구실에서는 매주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2-3명의 연구원을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는 박사과정에 3명, 석사과정에 2명이 수학중이다.

동 연구소는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독립연구소진물의 신축, 연구원 자질의 향상 및 연구원의 충원, 신약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중장

기 계획을 수립하여 물질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로 도약하

고자 경영진과 모든 연구원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